

2011년 8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2,497조회)

새로운 땅
新しい土地

신성한 변화의 힘에 대해
神聖な変化の力について

노벨상 수상작가 앙드레 지드는
ノーベル賞受賞作家アンドレ・ジッドは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랫동안 육지를
このようにいった"とても長いあいだ陸地を

보지 못한다는 각오로 항해를 해야
見ることができない覚悟で、航海をしてこそ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다."
新しい土地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

- 사라 밴 브레스낙의《혼자 사는 즐거움》중에서 -
- サラ・バン・ブラナックの<一人生きる楽しさ>より -

* '신성한 변화'를 꿈꾸며
* '神聖な変化'を夢見ながら

미지의 세계로 떠난 사람은
未知の世界に旅立つ人は

'육지'로 돌아올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陸地'に変わる考えをなく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ようやく、新しい土地を探すことができます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비우면
誰か一人が、まず自分を空けて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たくさんの人たちが新しい土地に

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新しい光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땅1

1. [명사] 土地。
2. [명사] 陸地; 地; 地面; 土。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년 ~ 1951년)

사라 밴 브레스낙 (Sarah Ban Breathnach)

2011년 8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4,181조회)

목욕, 자주 하세요
沐浴、よくしてください

목욕은 물을 통해
沐浴は水を通じ

몸과 마음의 더러움과 슬픔을 녹여버리고
体と心の汚れと、悲しみを溶かして

깨끗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침수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きれいに、あたらしく生まれる水に沈む体験をするのだ

소멸과 재생, 그것이 바로 목욕을 통한
消滅と再生、それがまさに沐浴を通じた

회복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回復の本当の意味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 이주은의《그림에, 마음을 놓다》중에서 -
- イ・ジュウンの〈絵に心をおく〉より -

* 며칠만 씻지 않으면
* 何日か洗わなければ

온몸이 까칠해지고 때가 낡습니다.
全身がざらざらして垢がつきます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수시로 씻어내야 합니다.
体はもちろん、心も随時きれい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미움, 원망, 분노, 질투, 슬픔... 이런 마음의 때를
憎さ、うらみ、憤怒、嫉妬、悲しみ...このような心の垢を

그때그때 씻어내지 않으면 삶에도 때가 낡습니다.
そのときそのとき、きれいにしなければ人生にも垢がつきます

명상, 기도, 산책, 풍욕, 독서, 음악, 여행...
瞑想、祈り、散策、風浴、読書、音楽、旅行...

목은 마음의 때, 삶의 때를 씻어내는
古い心の垢、人生のの垢を洗い出し

매우 좋은 방법들입니다.
とてもよい方法です。

목욕, 자주 하세요.
沐浴、よくしてください

침수 [沈水]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沈水; 水中に沈むこと。

소멸 [消滅]

1. [명사·하다형 자동사] 消滅; 消えてなくなること。

재:생 [再生]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再生。

20110830.txt

2.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生き返ること, また生き返らせること; 息を吹き返すこと: 蘇生; 回生。

까칠-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가칠하다の強調語。

가칠-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かさかさしている; やせて皮膚がざらざらしている。

수시 [隨時]

1. [명사] 隨時。

2. [명사] 好きな時にいつでも。

풍욕 風浴

활용 : 풍욕만[풍용만]

묵다

1. [자동사] 泊まる; 泊まり込む。

2. [자동사] 古くなる; ひねる。

2011년 8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2,813조회)

쉼표가 있는 자리
休符がある場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世界的なピアニスト

아르투르 슈나벨은 이렇게 말했다.
アルトゥール・シュナーベルはこのように言った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私が弾く音符は、ほかのピアニストと違うところはない

하지만 음표 사이의 정지, 그렇다.
しかし、音符のあいだの静止、そう

바로 그곳에 예술이 존재한다.”
まさにそこに、芸術が存在する”

- 사라 밴 브레스낙의《혼자 사는 즐거움》중에서 -
- サラ・バン・ブラナックの<一人生きる楽しさ>より -

* 음표 사이의 정지,
* 音符のあいだの静止

곧 악보 위의 쉼표를 뜻합니다.
まさに楽譜の上の休符を意味します

언제, 어느 자리에 쉼표를 찍느냐,
いつ、どの場所で休符を打つのか

그 쉼표 자리를 어떻게 잘 멈추느냐,
その休符の場所をどのようにちゃんととめるのか

음악 하는 사람들이 늘 고심하는 대목입니다.
音楽をする人々がつねに腐心する大きな課題です

쉼표가 있는 자리, 삶의 쉼이 머문 자리,
休符がある場所、人生の休みがとどまる場所

그곳에 예술이 존재합니다.
そこに芸術が存在します

참 행복이 있습니다.
本当の幸福があります

쉼:-표 [一標]

1. [명사] 休止符。

2. [명사] 文章符号のひとつ。

정지 [静止]

1. [명사·하다형 자동사] 静止; じっとして動かないこと。

음표 [音標]

1. [명사] 『음악』音符。

고심 [苦心]

1. [명사·하다형 자동사] 苦心; あれこれと心をくだいて考えること; 腐心。

20110831.txt

아르투르 슈나벨 (Artur Schnabel, 1882년 - 1951년)
(Sarah Ban Breathnach)

2011년 9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3,609조화)

사랑 여행
愛の旅行

사랑은 아마도
愛は多分

한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一人の世の中にはいって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일일 거야.
とても長いあいだ旅行をすることだろう

그 여행은 밤마다 초록색 베개를 안고
その旅行は毎晩、緑色の枕を抱いて

숲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두렵지만
森まで歩いて、帰ってくる。恐ろしいが

깨고 나면 두 눈이 따뜻해지는
さめてみれば、2つの目が温くなる

꿈 같은 거겠지...
夢のようだった...

- 엠마 마젠타의《분홍주의보》중에서 -
- エマ・マジエンタの〈桃色注意報〉より -

* 사랑은 여행과 같습니다.
* 愛は旅行のようです

나를 떠나 다른 한 사람의 세상으로,
私を離れて、ほかの 人の世の中に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その人の魂に入っていくのです

밤마다 초록색 베개를 안고 숲을 거닐며
毎晩、緑色の枕をだいて、森をさまよいながら

따뜻하고 황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暖かく恍惚な夢見るのです

살아가야 할 이유, 사랑할 이유가
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愛する理由が

여기에 있습니다.
そこにあります。

분:홍-빛 [粉紅-]

1. [명사] 桃色; 薄紅; ピンク。

거:닐다

1. [자동사] ぶらつく; 徘徊する; 散歩する。

황홀 [恍惚·恍惚·恍惚]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恍惚; 心を奪われてうっとりするさま; エクスタシー。

20110901.txt

Emma Magenta

2011년 9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2,827조회)

풍요
豊穰

'풍요'란 '부족함'의 부재를 의미한다.
'豊穰'とは'不足さ'の不在を意味する

즉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가리키는
まさに人間の要求が充足された状態をしめす

개념이다. 살린스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는
概念だ。サリンズによれば、このような状態は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달성되는데,
2つの戦略を通じて達成されるが

하나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ひとつはたくさん作り出すことで

또 하나는 적게 원하는 것이다.
もうひとつは、少なく望むことだ

- 고일홍 외의《문명 밖으로》중에서 -
- コ・イルンほかの<文明の外で>より -

* 두 가지 전략보다 더 크고
* ふたつの戦略よりさらに大きく

더 아름다운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さらに美しい戦略がもうひとつあります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自分が持ったことを、一緒に分けることです

콩 하나도 둘이 나누면 두 개가 되고
豆ひとつも二つに分ければ、2つになって

열이 나누면 열 개로 자라납니다.
10分ければ、10個に育ちます

적게 가졌어도 나누면
小さく持っても分ければ

늘 풍요롭습니다.
いつも豊穰です

풍요 [豊饒]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豊かなこと; 裕福なさま。

부재 [不在]

1. [명사·하다형 형용사] 不在; 留守。

가리키다

1. [타동사] 指す; 指し示す; 指さす; 示す。

2. [타동사] 方向や時刻などを知らせる; 示す。

전:략 [戰略]

20110902.txt

1. [명사] 戰略。
2. [명사] 戰爭・戰鬥の策略。

Salins

2011년 9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3,360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조송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ョ・ソ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9월의 햇살
9月の日差し

거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ほとんど夏が終わっていくころ

마지막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끝물의 과일 위에서
最後の豊かさを自慢する末成りの果実の上で

있는대로 시간을 끌다가
あるがままの時間をかせいで

마침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ついにこっそり消えてしまう

9월의 햇살을 몹시 사랑한다.
9月の日差しをととても愛する

- 피에르 쌍소의《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중에서 -
- ピエール・サンソの〈ゆっくり生きることの意味〉より -

* 맑고 뜨거운 햇살이
* 清く、熱い日差しが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あるときより、感謝するように感じる日々です

들녘의 곡식들이 땡땡하게 여물어 가는 소리,
平野の穀物がはちきれそうに実っていく音

단맛이 무르익는 과일의 향기가 바람결에 묻어옵니다.
甘い味が熟する果実の香りが、風のそばに埋もれてきます

'이틀만 더 남녘의 햇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2日だけ南の日差しをくれ'と祈る

시인 릴케의 음성이, 농부들의 애타는 기도소리가
詩人リルケの音声が、農夫たちのはらはらする祈りの声

어디선가 들리는 듯합니다.
どこからか聞こえてくるようです

끝-물

1. [명사] 旬が過ぎて実ったもの、また遅く出回るもの。

느리다

1. [형용사] のろい; 遅い; のろのろしている。

2. [형용사] きつくつまっていない; 緩い; 粗い。

들:-녘

1. [명사] 野原のある所; 平野地帯; 野良。

여물다1

1. [자동사] 実る; 熟する。

2. [자동사] 頼もしい。

탱탱

1. [부사·하다형 형용사] はち切れそうなさま。

단-맛

1. [명사] 甘み; 甘味。

무르-익다

1. [자동사] よく熟す; 熟れる; よく実る; 爛熟する。

2. [자동사] 熟す; 頃合いになる; 成熟する。

이틀1

1. [명사] 二日; 兩日。

2. [명사] 이틀날·초이틀·초이틀날の縮約形。

남-녘 [南一]

1. [명사] 南の方; 南方。

애:-타다

1. [자동사] 氣が気でない; はらはらする; やきもきする; 氣苦労する。

시간을 끌다. → 끌:다

時間を稼ぐ。

Pierre Sansot

ピエール・サンソ

Rilke